

## 제582주기 현덕왕후 기신제향(忌辰祭享) 봉행

제582주기 현덕왕후(顯德王后, 1418~1441) 기신제향(忌辰祭享)이 문종대왕(文宗大王, 1414~1452)의 제571주기 기신제향과 함께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구릉 내 현릉(顯陵)에서 6월 10일 오전 11시 참제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양원이 주관하며 섭행단체는 현릉봉향회 서울시지원 성동구분원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날 안동권씨부정공파(회장 권오준) 종원,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안동능우회(회장 권오익) 회원, 능곡회(회장 권오성) 회원, 권계주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협의회 초대회장, 권오운 전 대종회 사무총장, 권오철 안동권씨종보사 기자 등 50여 명과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양원 회원 70여 명 모두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안동에서 안동권씨부정공파, 능우회원, 능곡회원 등 40여 명이 탄 대형버스가 오전 6시 40분 안동을 출발하여 3시간 만에 현릉에 도착, 시간 여유를 가지고 부정공파 종원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능우회원 및 능곡회원은 흰색 제복(祭服)과 유건을 쓴 채 부스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초현관에는 이상철(李相喆) 현릉봉향회 감사가, 아현관에는 권기승(權奇昇) 안동권씨부정공파 종손, 종현관은 이규대(李奎大) 서울 강남구분원장이 각각 맡았다. 찬자는 이재홍(李載興), 집존자는 이은우(李殷武), 능사 이병우(李炳旼), 해설은 이종우(李鍾祐) 장릉봉향회제례이사가 각각 맡아서 2시간30여분 동안 봉행하였다.

현릉은 조선 5대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의 능이다. 정자가 쪽에서 능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에 문종의 능, 오른쪽 언덕에 현덕왕후의 능이 있다. 두 능은 동원이 강(同原異崗)이다. 동원이 강이란 같은 능역에서 하나의 정자를 사용하되 언덕을 달리하고 있는 능을 말한다. 처음에 문종



안동종친회원들이 권기승 아현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기승 아현관(부정공파 종손)이 현작하고 있다.

의 능과 현덕왕후 능 사이에 소나무가 빠졌다라고 한다. 그러나 능을 조성하자 소나무가 저절로 말라 죽어 두 능 사이가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은 1450년 즉위했다. 문종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고 세종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편찬하였으며 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 문종은 언로를 열어 민의를 파악하고 군사제도 개편을 하는 등 문무를 중용하면서 의욕적으로 국사를 추진했으나 몸이 허약하여 재위 2년 4개월 만에 39세의 나이로 승하하고 말았다. 부왕세종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문종은 생전에 영릉(英陵, 세종대왕릉) 오른쪽 언덕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곳을 파보니 물이 나고 바위가 있어 취소하고 건원 능 동쪽에 안장되었다.

현덕왕후 권씨는 문종의 왕비이며 단종의 어머니이다. 현덕왕후는 화산부원군 권전(花山府院君 權專)과 해령부부인 최씨(海寧府夫人 崔氏)의 딸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이다. 문종은 세자 시절 휘빈 김씨(1429년 7월 18일 폐출)와 순빈 봉씨(1436년 10월 26일 폐출) 이후 세 번째로 맞은 세자빈으로 1441년 남편 문종이 즉위한 후 왕후에 추존된다. 1441년 원순(端宗)을 낳았으나 하루 뒤 산후병으로 사망하니 향년 24세였다.

현덕왕후의 어머니 아지(阿只)와 왕후의 동생 권자신(權自愼)이 성삼문 등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 발각, 어머니와 남동생은 처형되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했다. 왕후와 아버지는 연좌되고 서인으로 각각 격하된다. 그 후 현덕왕후의 연좌제 적용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합의를 거쳐 1513년(중종 8년) 최종 결정되고 왕후의 아버지 권전이 1699년(숙종 25년) 8월 복원되었다.

현덕왕후 복위 후에 현덕왕후 능이 문종의 현능 오른쪽 언덕으로 옮겨져 지금의 자리로 이어오고 있다.

권영건 보도부장

## 유학자 설암 권옥현 선생 추모 모임 열려

지난 3일 오전 11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다이아몬드호텔 1층 연회장에서는 부산의 정통 유학자로 명성이 높은 설암 권옥현(1912~1999년) 선생의 24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모암계(慕畧契) 주최로 열린 추모 모임에는 허호구 단국대 초빙교수와 허영자 선생여대 명예교수, 바완식 전 전주대 교수 등 그의 제자와 비롯하여 동래향교, 김해향교의 지역 유림들, 그리고 서울, 대구, 합천, 밀양 등지의 제자와 유림들 그리고 장손 권석근 씨를 비롯한 가족, 후손 등 모두 80여 명이 참석했다.

유건 대표로 나온 설암 선생의 넷째 자제인 권해조(80) 씨는 "선고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24년째인데 그 뒤로 매년 계회가 열리고 있어 무한한 감개를 느낀다."며



"멀리 서울, 대구, 합천, 밀양 등지에서 오신 분들과 휴일인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하였다.

특히 이날 설암 선생 추모 모임에는 '설암 권옥현의 독사(讀史)와 사실(史實) 수록'이란 주제로 유영옥 동아대 연구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유 교수는 "부산의 20세기 마지막 정통 한학자 중 한 분인 설암 선생의 역사 관련 저술은 현대의 격랑 속에서도 도덕을 고양하고 의리를 드러내려는 성리학적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설암 선생은 율곡 이이·우암 송시열 선생의 기호학맥을 이은 현대 유학의 거목, 주연 권용현 선생 문하에서 공부하고 부산에 정착, 금남서당을 열어 후학을 길렀다. 설암문집 18권 6책을 저술했다. 선생이 떠나신 아들heim 지난 2000년, 그의 제자와 후손들이 뜻을 모아 설암 선생의 학덕을 숭모한다는 의미의 '모암계'를 결성하고, 매년 6월 계회를 겸한 추모 모임을 갖고 있다. 권재영 부산사무국장

##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 선생 향례 봉행

지난 5월 14일 일요일, 합천 태동서원(泰東書院, 원장 만암 김진웅金鎮雄)은 송덕사(崇德祠)에 배향(配享)되신 근세 유학의 큰 스승,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 1899~1988) 선생에 대한 향례(享禮)를 봉행하였다. 올해 향례는 외임(外任)인 권영복, 전임수 주관 아래 초현관은 김승규(金勝圭), 아현관은 김동기(金東基), 종현관은 권동술(權東述)이 맡고, 집례에는 권기감(權奇甲), 죽관에는 이천규(李千圭) 등을 분정하여 의례를 진행하였다. 이날 향례에는 대구 낙동서원, 전남 장성 팔암서원, 산청 신안정사를 비롯한 원근 서원의 유림 단체와 합천 대병 삼교당 후손을 비롯한 일가종친 등 경향 각지에서 100여 분의 유림, 종친들이 참례해 성황을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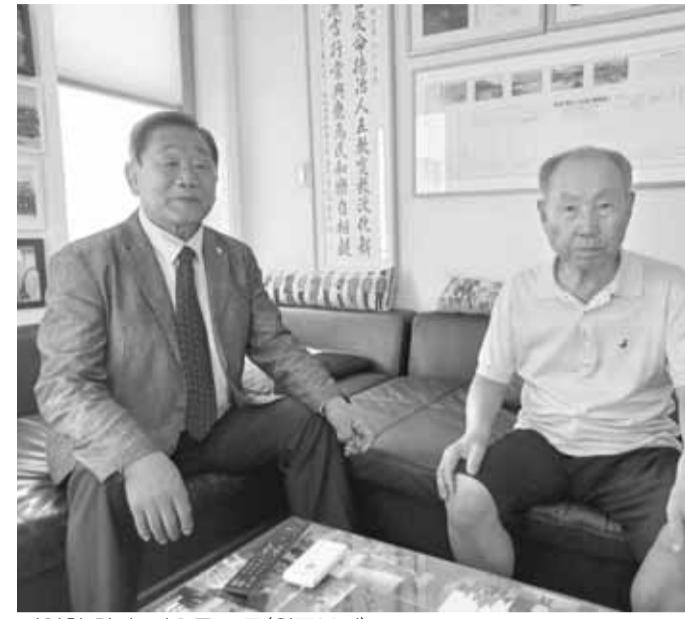
었다.

추연 선생은 멀리 조선조 성리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과 학맥이 이어진다. 기호학파로 우암의 후손인 한말(韓末)의 연재 송병선(1836~1905)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각재 권삼현(權參鉉, 1879~1965) 선생을 사사(師事)하였으며, 올곧은 선비로서 은거(隱居)하여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다. 선생은 일생 동안 수많은 문인을 양성하였고, 등신(等身)의 저술을 남겨 유학의 학맥을 후세에 전하였다. 제자로서 이름난 학자로는 설암 권옥현, 성재 이근섭, 화재 이우섭을 비롯하여 이병혁, 허호구, 김재열, 박완식, 이갑규, 조동영 등 모두 400여 명에 이른다. 추연의 학문과 지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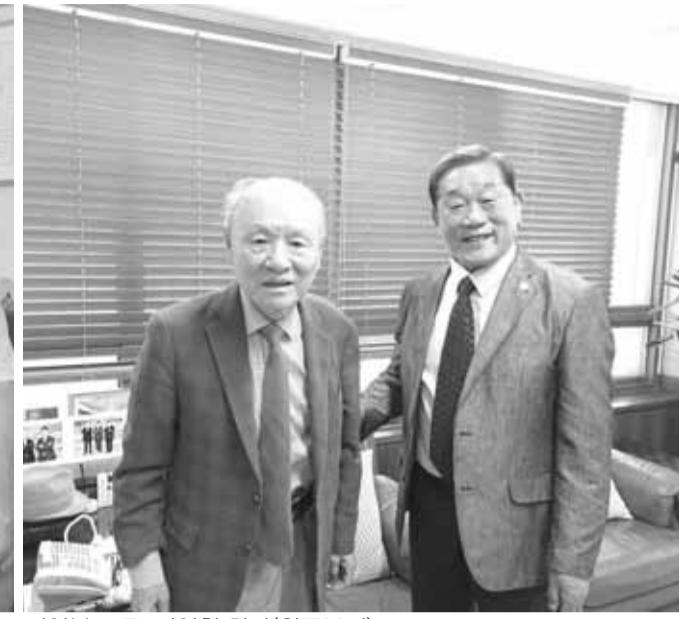
"학주성리學主性理 行주성실行主誠實"로 학문은 성리학을 주창하고, 행실은 성실에 바탕을 두었다.

태동서원의 태동은 태암산의 동쪽이란 뜻과 서양을 일컫는 태서(泰西)에 상대하는 말로 동양의 도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서원은 교육장인 승교당과 기숙사인 서재를 두고 여름, 겨울 방학 중에 강학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제향에는 제자인 조동영씨가 선생께서 경계로 삼으신 좌우명 "숙흉야마재감(夙興夜寐箴)"을 강송하기도 하였다. 본 제향은 2012년 서원 창건과 함께 해마다 음력 3월 25일 오전에 봉행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비로소 재개하게 되었다. 권재영 부산사무국장

## 권영창 회장 취임 인사차 대종회 고문 방문



권영창 회장, 권오록 고문(왼쪽부터)



권영복 고문, 권영창 회장(왼쪽부터)

권영창 회장은 6월 2일 15시 취임 인사차 권오록 고문을 방문했다. 권영창 회장은 '안동권씨 1100년 사업계획서'에 대해 고문님께 보고하고 자문을 구하려 했다고 말하며 영주시장과 도의원, 사업체 경영, 바쁘게 살기운동 45년 등 다년간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일 많이 하려고 작정하고 있으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동권씨 1100년 사업계획서' 하나님나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1. 애족사상 고취
2. 총천 친목 도모
3. 사무국 활성화
4. 고정유동자산 철저관리
5. 행주대첩 국가행사로 격상
6. 종보 확대 보급
7. 장학사업 확대
8. 아카데미 운영(보학강좌)
9. 지역별 임원순회 간담회
10. 각종 종무위원회 활성화
11. 권리 1100주년 기념사업 용역
12. 능동성지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13. 유물기록관 건립 추진
14. 시조 동산 건립
15. 진입 도로 확포장 및 꽃길 조성
16. 조경수 헌수 추진위원회 구성
17. 권현인비묘, 양촌 권근 강리도, 헌자효부 찾기
18.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및 사당 건립
19. 행주대첩 국가행사로 격상

이에 권오록 고문은 먼저 100만 족친들의 회장으로 추대되어 신임에 대해 축하드린

다. 시조 태사공과 안동권문을 위해 큰 일 하신다고 말하며 안동권씨 1100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영창 회장은 권영복 고문을 방문하여 '안동권씨 1100년 사업계획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자문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권영복 고문은 100만 족친의 회장으로 추대되어 축하한다고 말하며 회장으로 추대되어 어깨가 무겁겠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하며 도울 일을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36)



조선조 최고 천재들의 한 사람인 허균(1569~1618),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은 한국최초의 국문 소설 "홍길동전"작가이며, 그의 시문집 속에는 「학문學論」, 「호민론 豪民論」, 「금종直論」 등의 400여 년을 앞선 혁명론이나 인물평론 등 수많은 논설들이 들어 있는데, 21세기 현대의 지식인들이 읽어도 자

기반성과 함께 그의 실학적인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에 투철한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대문호(大文豪)·영웅이었다는 깨달음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는 혁명을 실천하려다가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으로 생을 마감하였고 멸문지화를 당했다.

허균은 「학문」에서 학문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논하였다. 그는 「옛날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잘살기(착한 척하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릇 이치를 궁구(窮究; 끝까지 연구)하여 장차 천하세상의 변화발전에 대응하고 진리와 나아가 실천할 도리를 밝혀 후세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다(古之爲學者, 非欲獨善其身也. 蓋將窮理而應天下之變, 明道而開後來之學)」

최근 이른바 '검찰공화국·검찰독재의 공정·법치·인사난맥과 독식(獨食)·독직(濫職), 가짜뉴스로 진실을 호도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쏟아내는 언론기제들, 진리와 학문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모르게 하는 교육개혁과 과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교수·학자출신 고위공직자 무리들의 모습에 암울한 망국(亡國)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 같다.

참고로 북송시대(960~1127) 구법당(大法黨; 대지주와 부상대고)의 주체인 송나라 신종(神宗) 희녕(熙寧) 2년~5년(1069~1072)에 집중되었으나 보수파인 구법당과 신종의 사후 어린 9세의 철종(哲宗)을 섭정(攝政; 수렴경정)하였다. 태황태후였던 선인태후(宣仁太后) 고씨(高氏)와 연결된 사마광(司馬光, 1019~1086), 자는 군실君實, 호는 우부迂父)과 외척(外戚) 세력 등 구법당에 의해 차례차례 모두 혁파되었다. 그 후 매관매직, 사치·호화로운 풍조가 다시 등장하고 부패한 내정과 이율리 외치, 즉 부국강병책이 약화되어 1127년 금나라에게 복속은 멸망당하였다.

북송 때 신법을 통해 개혁을 단행한 왕안석에 사사건건 반대한 구법당의 범주에 속했던 소옹(昭伯溫, 1057~1134)이 남송(1127~1279) 초에 "소씨견문록昭氏聞見錄"을 편찬하자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자는 개보介甫, 호는 반산半山)은 정치적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형편없는 파탄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구법당의 학문을 계승한 남송 시대 주희(朱熹, 1130~1200), 자는 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의 "삼조명신언행록三朝名臣言行錄"으로 이어졌고, 다시 "송사宋史"본전의 기술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후 왕안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그의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칭찬이 재评价되고 있다.

그러나 왕안석의 신법 개혁이 혼란을 자초하고 나아가 북송을 멸망하게 된 원인인가? 왕안석이 원래 '상정(常情)'을 어기는 자는 소인(小人)이거나 크게 간사한 인간'이라는 등의 이러한 논의나 수많은 저술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후대 이웃 나라인 조선조가 정치철학에서 정주(程朱: 정호·정이·주희) 성리학을 위주로 하며 구체적인 정치 내용에 있어서도 송조(宋朝)를 많이 참고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정정보도 2023년 종보 5월호 1면 광고란에 보도된 계묘년 춘향 헌성금 관련 기사를 아래와 같이 정정 보도합니다.

번호	정정 전	정정 후
13	同正公派宗會 20만원 安東會長: 권오수	正朝公派宗會 20만원 安東會長: 권오수
32	安東大瓢門中 10만원 安東 傕射公派	同正公派宗會 10만원 安東會長: 권오수